

사부님은 나를 구해주었다

나의 이름은 진삼이고 올해에 37 세이다. 나는 비암에 걸려 암세포가 이미 확산되어 어깨, 팔, 다리에 크고 작은 혹들이 돌아났고 눈이 멀었으며 머리칼도 거이 다 빠졌고 입과 코가 빠들어졌으며 게다가 얼굴마저 변형되어 누구나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병원에 가서 치료했지만 저축했던 돈만 다 쓰고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나는 모진 고통과 번민끝에, 출가한 중이 되어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작심했다. 그리하여 금년 9 월에 무당산 한 묘당을 찾아갔다. 한 늙은 중이 내가 온 사연을 듣고 나서 《우리 이 묘당은 관광업 성질을 띤 것이어서 도제를 받지 않네.》라고 거절했다. 나는 그가 소개한 도장(道長)을 만나보려고 산허리에 있는 암석동굴로 찾아갔다. 도장에게 나를 도제로 받아달라고 청원했다. 도장은 말하기를 《자네의 병을 뗄수 있고 중생을 구도할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파룬궁사부님뿐이네. 어디나 파룬궁학원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서 문의해 보시오. 내가 나의 부모는 파룬궁학원이라고 말하자 그는 어서 돌아가라고 나를

轉法輪

李洪志

재촉했다. 한가닥의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부모를 만나 도장이 나에게 한 말을 거듭 외웠다. 부모는 나에게 《대법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꼭 기적이 나타날거다.》라고 간곡히 말했다. 부모는 내가 글을 읽을수 없으니 사부님설법록을 듣게 하고 5 조공법을 배워주었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술한 검은 대변을 배출하고나니 (몸을 정화하는 현상) 정신이 나고 몸이 거뻏했다. 이날 내가 가부좌하고 정공(靜功)을 할때 눈앞이 번개 불처럼 뻥뻥뻥 하더니 점차 아버지를 볼수 있었다.

나는 “전법륜”보물책을 이틀동안 다 읽고나니 나의 몸에서 기적이 나타났다. 온몸에 돌아났던 혹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반대머리에 검은 머리칼이 새로 나오기 시작했다. 33 일동안 참답게 법을 배우고 련공을 견지한 나는 지금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이웃들은 나의 변화를 보고 《파룬따파가 좋다.》라고 찬탄했다. 나는 생명을 구해준 사부님을 모시고 “쩐싼런”을 수련하여 반본귀진의 길에서 정진(精進)하고 있다.

대만에 풍미한 신운예술단

영예로운 미국신운예술단



이 되어 닷새도 안되어 37 차례 공연의 8 만장 문표중 근 2 만장이 팔렸다. 해외 파룬궁학원

이 2009 년순회공연직전에 대만에 내방공연 스케줄이 잡힌후 12 월 1 일 매표 첫날부터 만원

으로 구성된 신운예술단은 주로 중국고전무용으로 중화신전문화의 정수(精髓)를 펼쳐보였다. 2007 년 12 월부터 시작하여 141 일동안 4 대주 66 개 성시에 215 차례 순회공연을 하여 60 여만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해외매체에서는 “세계 최고공연”, “심령을 정화하는 성대한 연회”라고 평가했으며 해외화교들은 “중화민족의 자랑”, “민족정통문화의 부흥”이라고 찬미했다. 금년에 이 신운예술단공연은 작년에 비해 규모가 더욱 성대하다.

당나귀를 꺼꾸로 타고 다닌 장과로

여덟신선중의 한사람인 장과로(張果老)는 인류의 도덕이 날마다 미끄러져 떨어져 명리와 봉록에 미혹된 인간세



상에 당나귀를 꺼꾸로 타고 돌아다니면서 인류의 진보를 가늠하는 표준은 도덕이고 도덕이 미끄러져 떨어지면 사람은 퇴보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중국인권국제회의에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죄악을 폭로



2008 년 중국인권국제회의는 지난 12 월 2 일 에 벨기에 수도 브루셀에서 열렸다. 12 개 국제인권기구와 자심유럽의회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은 근간에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죄악을 폭로했다. 유럽의회 부주석 스코트는 “중공이 파룬궁학원들에게 감행한 집단학살(群体灭绝)박해에 대해 국제법정에서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18 개 나라 정부요인들이 연합국에 보낸 서명신



《세계인권선언》 발표 60 톱에 즈음하여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과 18 개 나라 300 여명 정부요인들이 서명한 편지를 연합국인권리사회에 보내어, 연합국에서 효과적인 행동을 채취하여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제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리옹에서 집회를 열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규탄



2008 년 11 월 30 일, 프랑스 리옹에서 파룬궁학원들은 집회를 열고 파룬궁을 소개했고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죄악을 규탄했다.

1 년 남짓이 피어 있는 우담바라꽃

2007 년 가을에 료녕성신민시 모 농촌에 살고 있는 한 파룬궁학원의 집의 한 마른 옥수수대에 여러 무더기 우담바라꽃이 폈다.꽃이 핀지 1 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갓 피어난 꽃처럼 변함 없다.



꼬마제자들의 몇가지 재미있는 일

광활한 중국대지에 수많은 파룬따파 꼬마제자들이 마음속에 “쩐싼런”을 간직하고 파룬궁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속에서 즐겁게 자라나고 있다.아래에,꼬마제자들이 “만물은 령혼이 있다”는 파룬따파의 법리를 친히 증실한 몇가지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련다.



날 줄 아는 글자

뒷줄에 앉은 한 꼬마제자가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마음속으로 《글자가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자 과연 칠판 글자가 크게 변하면서 그의 눈앞으로 날아와 똑똑히 볼수 있었다.



말할 줄 아는 답안

금방 1 학년에 입학한 한 꼬마제자가 숙제를 할 때 매 문제마다 답안을 쓴 후 《맞을까?》하고 생각하자 갑자기 답안에 작은 입이 나타나서 틀리면 《틀렸다.어서 지워버려라.》라고 말해주었고 맞으면 《맞았다.》라고 말해주었다.



걸을 줄 아는 옷

한 꼬마제자는 록음기를 틀어놓고 파룬따파의 음악 《중생을 제도하다》, 《세상을 구하다》를 듣고 있었다.그는 《가까이에서 들었으면...》하고 생각하자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작은 손과 발이 나타나더니 그를 끌어당기며 록음기앞으로 걸어갔다.

급사한 간수소 소장

리태문은 하북성 당해현간수소 소장이다.그는 어느날 파룬궁학원들을 구타하고 나서 《선악엔 보응이 있다는 것을 난 믿지 않는다.돈 없으면 살수 없는 현실만을 믿을뿐이다.당신들은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난 믿지 않는다.구경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죽은 후에 가 보겠다.》고 말했다.그날 저녁에 갑자기 병에 걸린 그는 며칠후에 급사했는데 그날 따라 간수소상공 북쪽에 우리가 울며 7 번 벼락을 쳤다.

